

'농촌형 청소년 정책' 우수사례 주목

무주군 무주읍 청소년키움센터, '청소년 자치 운영 방식' 국내외 전문가 관심

무주군 무주읍 청소년키움센터가 지역에 필요한 교육·문화 인프라이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대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운영 방식이 농촌형 청소년 정책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키움센터 관리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무주문화기술회사(주)에 따르면 연간 1만2,000여 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반정을 선출해 이용 질서와 운영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청소년이 공간의 단순 이용자를 넘어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자치 운영 방식은 책임감과 협동심,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생활 속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학교 밖에서 자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천적 교육 공간이라는 점에서 외부 연구기관과 해외 전문가들의



무주청소년키움센터 전경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충북연구원 유하열 선임연구원과 일본 동경농공대학 우치노 료타 박사가 키움센터를 방문해 공간 운영 구조와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살펴봤다. 청소년키움센터는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생활밀착형 교육·문화 공간으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센터는 건축면적 184㎡, 연면적 354㎡ 규모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독서와 휴식, 기초 문화활동이 가능한 '생누리작은도서관'이 마련돼 있으며 6천여 권의 청소년 맞춤형 도서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

2층에는 총 69석 규모의 청소년 학습실이 조성돼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과 동아리 활동, 각종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의 잠재력과 지역 특성을 살린 기반시설을 확충해 문화·복지·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무주읍 1단계 사업과 안성면·설천면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 30일의 썸머 캠퍼스' 추진

군, 31일까지 대학생 체류형 로컬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장수군은 오는 31일까지 대학생 체류형 로컬 프로젝트인 '장수 30일의 썸머 캠퍼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수 30일의 썸머 캠퍼스'는 대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 관내 청년단체, 농가, 관광자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 장수군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락앤런 인턴십'과 '시무골 여름살기'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락앤런 인턴십'은 장수군 로컬기업인 '락앤런'이 운영하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진행된다. 트레일러닝·스포츠관광·로컬브랜드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및 청년 2명을 모집한다. 인턴십 활동비와 숙소가 제공되며 △현장 실무 참여 기회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활동 수료증 발급 △티셔츠 및 기념품 등의



필기업인 '락앤런'이 운영하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진행된다. 트레일러닝·스포츠관광·로컬브랜드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및 청년 2명을 모집한다. 인턴십 활동비와 숙소가 제공되며 △현장 실무 참여 기회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활동 수료증 발급 △티셔츠 및 기념품 등의

혜택도 함께 지원된다.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선발된다.

또한 '시무골 여름살기'는 장수군 로컬단체 '예농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4박 15일간 번안면 일대에서 진행된다. 장수군과 협약을 맺은 목원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7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는 시무골 예술제와 예술정원 조성 프로젝트, 로컬투어, 농업·예술 융합 콘텐츠 제작, 장수 트레일러닝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되며 교통비와 숙박비가 지원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목원대학교 여학생에게만 신청 가능하고 연계해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다.

'락앤런 인턴십'은 구글폼(<https://forms.gle/XVv7E4QK8K6Gv323p7>)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시무골 여름살기'는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 모집·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계남초등학교에 파크골프 시설 확충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작은학교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과 위해 계남초등학교 운동장 내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로 확충·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

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교수학습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생활체육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작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지역 상생형 학교 공간 조성이라는 점



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2026 전북도민체전 D-100 카운트다운 행사'가 27일 진안군 일원에서 조직위원회와 범군민참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도민체전 D-100 카운트다운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도민' 성공 개최 열기 고조

진안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2026 전북도민체전 D-100 카운트다운 행사'가 27일 진안군 일원에서 조직위원회와 범군민참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에서 처음 열리는 '2026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 D-100 카운트다운'의 '2026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9. 19.~9. 21.) 개막 100일을 앞두고 성공 개최 의지를 다지고,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회 슬로건 합동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양대 체전 준비상황 보고, D-100 카운트다운 점등식 등이 진행됐으며, 행사장 곳곳에는 대회 성공

을 향한 기대와 열기가 가득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회 슬로건인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도민!"을 함께 외치며 성공 개최 의지를 다졌으며, 주요 내빈이 참여한 D-100 카운트다운 제막 퍼포먼스는 대회 개최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리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개된 D-100 카운터기는 진안군청 청사 외부와 진안공설운동장 성화대에 설치돼 대회 개막일까지 남은 일수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성공적인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징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맞손'

'생명존중 안심공동체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생명 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와 손을 맞잡았다.

27일 군에 따르면,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날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와 '생명존중 안심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은 자살 위기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자살예방관인 노창환 부군수를 비롯해 홍찬표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무주군보건의료원장), 이순희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살 위기 주민 조기 발굴 및 대응·연계 활동,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협조, 자살 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 생명존중 안



심마을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의 지역 밀착형 활동 역량과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지원체계를 연계해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명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는 '군민·가족·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감장·반찬 나눔, 환경정화 활동, 재난 복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상수도 유수율 개선 연 13억원 비용 절감 효과

진안군이 상수도 관망 효율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25년 말 기준 상수도 유수율이 6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54.7% 대비 13.3%p 상승한 수치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가운데 실제 사용과 요금 부과로 이어지는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누수와 손실이 줄어 상수도 운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함께 개선된다.

이번 유수율 상승에 따라 연간 332,128㎡의 누수가 저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진안군 수돗물 생산원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에 해당한다. 해당 물량은 백운·성수·마령면 주민이 약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군은 급수구역 블록화, 야간 최소유량 분석을 통한 미세 누수 탐지, 노후 상수관로 및 계량기 교체, 정밀 누수 탐사 등을 집중 추진해왔다.

군은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유수율 80%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전역에 균등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장수군은 다음달 19일까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공단지 내 공장 등록을 한 기업 중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불투명비와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장수군은 오는 6월 19일까지 사업 공고를 진행하고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적격 여부 검토와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선정하고, 6~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